

문화 서울

2026 10 VOL. 236

문화서울

서울,
예술이 되다



③ SEOUL +

- 04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 07 인포그래픽
서울의 밤, 경계를 넘어 문화를 채우다
- 14 지금, 서울다움
작은 동네의 가치를 품은 도시
A City Embracing the Values of Small Neighborhoods
- 46 예술적 도시 읽기
달리는 크루와 걷는 시민이 함께하는 법
- 56 로컬 리포트
연결을 만드는 극장들의 플랫폼-한국소극장협회 장경민 이사장

② FOCUS +

야간문화, 잠든
도시를 깨우는 활력

- 20 칼럼
화려한 소비와 소소한 일상 사이-야간경제의 미래
- 22 프리뷰
어둠이 내리면 서울의 밤이 막을 올린다-10월 즐기기 좋은 서울의 문화 행사
- 26 인터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야간 비전', 사샤 오에다 멘도자에게 듣다
- 31 스케치
문학으로 들여다본 세계 도시의 밤

① ARTS +

- 08 예술가의 진심
영원히 나이들지 않는 예술가, 김윤신
- 40 인사이드
서울형 예술지원 3.0이 그리는 2027년의 변화를 미리 만나다
- 48 예술이 흐르는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패할 시간을 지켜주는 일
- 50 페이퍼로그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이연경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극장운영부 과장
- 52 예술인 아카이브
남의현
- 54 예술인 아카이브
임주아

④ CULTURE +

- 36 인사이드
물이 머물던 자리에서 예술이 흐르는 자리로-10주년 맞이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 43 이야기를 읽는 경제학의 눈
다이애나, '마중의 경제학'을 다시 묻다
- 60 해외는 지금
북유럽 문화기금 60주년, 내일의 무대를 위한 연대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번역 evener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10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의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만
서문
문화
재단

서울
예술
이되다

문화
기대
락로



서울발레시어터 <지젤>
영등포문화재단은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낭만발레 <지젤>을 선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가 준비한 이번 무대는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에 해설을 더해 초심자부터 발레 매니아까지 누구나 쉽게 발레의 매력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문화도시 영등포구 주민이거나 2인 이상 관객, 65세 이상 어르신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마련된다.
10월 24일과 25일 | 영등포아트홀 02.2629.2250



중랑옹마폭포축제
중랑구 옹마폭포공원에서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진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자리. 달콤한 솜사탕과 유쾌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는 마임 아티스트 '코튼캔디맨', 지역에서 수집한 물건을 관객이 그린 그림과 맞교환하는 이동형 참여예술 '민물미술트럭'을 비롯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푸드트럭과 장미카페 팝업이 풍성한 먹거리로 함께하며, 유명 기수의 초청공연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10월 10일 | 옹마폭포공원 | 02.3407.6563



원로예술지원 기획사업 <마스터피스 토크>
원로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이들의 창작 경험과 예술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공유하는 참여형 토크콘서트가 10월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10월 18일(소설가 현기영)과 25일(시인 신달자) 연희문학창작촌, 20일(음악가 김일륜·김해숙)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22일(무용가 윤덕경)과 24일(무용가 조윤라) 서울무용센터, 31일(조각가 김윤신) 신당창작아카데미드에서 차례로 열리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댕로마켓

지난 5월, 수많은 영감과 이야기로 채워진 '댕로마켓'이 결실의 계절 가을, 두 번째 장을 연다. 댕로마켓은 저마다의 삶을 지어가는 데 꼭 필요한 재료를 소개하는 장터다. 익숙한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생활의 재료'와 새로운 창작과 상상을 자극하는 '예술의 재료'가 대학로센터에 한데 모인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한 셀러마켓을 비롯해 재료 테이스팅 워크숍, 함께 노래 부르기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가을의 정취를 담은 제철 공연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만난 재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해보며, 스스로 삶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안할 예정.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야외 공간과 실내 곳곳이 영감의 공간으로 개방된다.

10월 31일 정오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 02.758.2174



서울연극창작센터 공간개방축제 <장면출고>
연극 창작 준비부터 실험·발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연극창작센터가 공간개방축제 <장면출고>를 연다. 센터 실내외 공간에서 총 17개 작품, 34회의 공연이 펼쳐지며, 오프닝·클로징 공연(기획·제작)과 <오픈랩 씨어터> 8개 프로젝트, 그 외 창작공간 연극축제, 지만지드라마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극장뿐 아니라 연극인 라운지, 야외마당, 옥상공원 등 센터 곳곳에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극창작센터 누리집(stcccenter.or.kr) 또는 인스타그램(@stcc_20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 서울연극창작센터 | 02.758.1607

A

ARTS +

예술가의 진심

영원히 나이들지 않는
예술가

김윤신

허윤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 Studio Kenn



“나무는 바로 나예요.”

91세에 전기톱 들고 나무를 자르는 현역 조각가가 말했다. 구순에 전성기를 맞은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 “나무가 좋아서” 40년간 한국을 떠나 아르헨티나에서 작업했고, 다시 한국에 정착한 지금도 눈을 뜨면 나무부터 만진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 자연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나는 톱질을 해야 몸이 안 아파요.”

경기도 파주 작업실에서 만난 그가 풍성한 백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원조 걸크러시’ 매력을 발산했다. 작업실에 들어선 순간, 그윽한 나무 향이 훅 들어왔다. 육질 단단한 나무 조각들, 작업을 기다리는 원목이 공간 가득 늘어서 있었다. 작가는 “이 나무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며칠 동안 보다가, 딱 느낌이 왔을 때 톱을 들고 거침없이 공간을 만들어 간다”며 “일단 잘라내야 그다음에 보인다”고 했다. 그 과정을 그는 ‘합이합일 분이분일 合二合一 分二分一’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재료와 내가 하나가 되어 ㅅ 작품이라는 또 다른 하나가 탄생 ㅅ한다”는 의미다.

지금도 왕성하게 작업할 수 있는 체력의 비결이 뭐가요.

나는 쉽 없이 작업해왔기 때문에 톱질을 해야 몸이 안 아파요. 나무하고 톱은 내 몸과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모형도 만들고 스케치도 해놓고 작업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정신이 딱 집중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톱과 내가 하나가 돼 나무에 거침없이 공간을 만들어가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작업)해도 배도 안 고파요.

별도의 스케치나 구상을 거치지 않고 작업을 하시네요.

톱을 들기 전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바라봐요. 오래 가는 건가, 어떤 향이 나오나, 결은 어떻게 됐나... 껍질도 좋은가, 물기는 어느 정도인가. 나무가 가진 여러 가지 성질까지 다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김윤신은 1935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자랐다. 나무를 솟대처럼 쌓아 올린 초기작 ‘기원쌓기’ 연작은 유년기 기억과 맞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오빠 김국주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엄마는 새벽마다 장독대 옆에 물을 떠 놓고 기도했다. “내가 돌을 주워다 쌓으면 엄마가 초를 세워두고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엄마의 간절한 염원에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술이 단순히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과 혼이 드러나는 것임을 나

중에 깨달았죠.”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1969년 귀국해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74년 한국여류조각가회 설립을 주도했다. 1983년 12월 김윤신은 “이곳 나무가 기차게 좋다”는 조카의 말에 이끌려 아르헨티나를 찾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숲, 아름드리나무가 나를 멈추게 했어요. 여기 재료로 1천 점을 만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결심했지요.”

그는 대학교수라는 안정된 지위도 내려놓고 그곳에 정착했다. 돌처럼 단단한 남미 나무와 씨름하다 찾아낸 도구가 전기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알가로보·라파초·칼텐·케브라초 같은 원목이 그의 손을 거쳐 원초적 생명력 물씬한 조각으로 탄생했다.

나무 때문에 이주를 결심했습니까.

아르헨티나 조카 집에 놀러 갔는데, 아름드리나무가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단단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엔 굵은 나무가 없었어요. 대사관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현대미술관을 찾아가 ‘이 나라에서 전시하고 싶다’고 했죠. 관장님이 작품을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두 달 달라고 했습니다. 현지 나무로 두 작품을 끝냈을 때 관장님이 와서 보고 감동하시더군요. ‘30년 관장 생활을 했지만 껍질을 붙인 채로 속살과 겉살의 공간에 차이를 두면서 만든 작품은 처음 봤다’면서. 미술관 야외에서 전시가 열렸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기저기서 전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안정된 교수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선택의 갈림길에 섰죠. 예술가가 될 것인가, 교수로 남을 것인가. 그때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술가로 남을 거라고.

전기톱과의 인연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활톱으로 잘랐어요.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잘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기톱을 쓰라고 추천하더라고요. 나무에 온갖 돌을 자르며 실험에 매진했어요.

원산·안변·서울, 프랑스 파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 브라질, 다시 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죠. 나는 오직 내 일만 했어요.





초기작 ‘기원썩기’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서 출발했는데, 구순 님은 지금의 작업도 어떤 대상을 향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젊을 때는 기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추상의 형태로 표현해야겠다고 느꼈죠. 내 속에서 쌓이고 쌓이는 생각의 움직임이 탑처럼 올라오게 된 건데, 지금은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꼭 이렇게만 해야겠다고 없어요.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3년 전인 2023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김윤신: 더하고 나누며, 하나》가 소위 대박이 나면서 국제 미술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한국에 이런 조각가가 있었다니...’ 평단과 언론, 시장이 열광했다. 한국 대표 화랑인 국제갤러리와 세계적인 미국 화랑 리만 머핀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고, 두 곳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2024년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전시에 초대받은 데

이어, 지난 봄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생애 첫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1982년 개관한 호암미술관이 한국 여성 작가의 개인전을 연 건 처음이었다. 당시 호암미술관은 김윤신에 대해 “한국적 감성과 동양적 사유를 기반으로 남미의 자연과 문화를 흡수하며 구축된 매우 독자적인 작품”이라며 “톱질과 망치질 자국으로 가득한 조각은 동시대 미술에서 경험하기 힘든 ‘작가’라는 존재를 느끼게 한다”고 평했다.

나무는 평생을 함께한 재료인데, 나무의 매력이 뭔가요.

재료 자체가 살아 있다는 것. 절단했어도 썩지 않는 한 나무는 살아 있는 거예요. 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였어요. 금강산 가까운 안변에서 살던 어린 시절, 학교까지 십 리를 걸어 다녔죠.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 자연과 더불어 놀았어요. 산과 들과 벌판과 논밭... 모든 게

다 내 친구였어요. 자연과 더불어 커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한국 나무로 작업하시나요?

한국 나무는 연하니까 작업이 아주 순해요. 아르헨티나 나무는 돌처럼 단단해서 전기톱 체인이 빠르고 세차게 돌아가거든요. 자를 때의 감정과 나무가 변하는 순간, 소리, 모든 것이 하나가 돼 나오는 쾌감이 있는데, 한국 나무는 물렁물렁해서 톱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새 잘려 있어요.(웃음)

그의 작품은 쪼개진 나무의 껍질과 속살이 하나로 상승하는 형태를 띤다. 톱질을 통해 드러나는 나무의 속살과 원래 모습 그대로 살려둔 나무의 거친 껍질이 시각적 대조를 이룬다. 멕시코·브라질 채석장에서 만난 돌 조각, 2000년대 이후 채색 조각도 김윤신 작품의 한 축이다. 남미의 토속성·원시성, 한국의 오방색이 만난 원색의 회화도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남미와 한국이 회화안에서 독특한 조화를 이룹니다. 의도한 건가요?

자연적으로 환경이 나한테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정착하고 나서 남미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엽서 한 장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인디언 후손들이 옷을 입지 않고 몸에 화려한 색을 칠하고 다닌다는 걸 듣고 떠올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방색에 남미의 원초적인 색감을 더해서 조각에 그림을 넣어봐야겠다고 시작했어요.

구순 님이 스타 작가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시니 너무 고마운데 아직 떨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뭐가 다른가요?

모든 것이 정말 빨라졌어요. 내가 떠날 때는 전쟁 후 복구도 제대로 안 났을 때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작품을 들고 와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긴 했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젊은이들의 활약이 대단하고 에너지가 느껴지죠. 내 나라 오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 나는 어디를 가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내 집이고, 고향이에요. 지금도 눈 뜨고 밥 먹으면 바로 작업을 합니다.

슬럼프가 한 번도 없었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대학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가면서 오빠와 약속했거든요. 독립투사 출신의 오빠가 ‘네가 유학을 떠나면 결혼은 하기 힘들 거다. 혼자 살 인생을 대비하고, 나이 들어서 조카들에게 신세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그려겠다’ 약속하고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오빠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딴 데 한눈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에너지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지난 6월 폐막한 호암미술관 회고전엔 수많은 MZ 세대들이 다녀갔다. 20~30대 여성들은 특히 전시에서 상영된 17분 남짓한 영상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파주 작업실에서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는 작가의 일상과 지구 반대편의 이국,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어지는 궤적이 교차 편집돼 흘러간다.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그는 말한다. “딱 105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 하면 누가 봐도 ‘이거 김윤신이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김윤신다운’ 작품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내가 유럽에서도 있었고, 아르헨티나·멕시코·브라질에서도 작업했지만,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걸 보면 영향받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작품은 오로지 김윤신’ 하는 작품을 끝까지 해놓고 가야 하니까 쉽 없이 해야 해요.”

삶을 개척해온 1세대 선배 예술가로서 후배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갑자기 뭐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자기 것을 찾아가야 뭐가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 나를 희생해야 해요. 다 즐기고 어떻게 찾습니까? 희생하지 못하면 적절한 선에서 끝나는 거고.

‘매운맛’ 조언을 날린 선배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요, 지금까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신당창작아케이드 마스터피스트크 〈한 작품은 어떻게 시대가 되는가〉
10월 31일 오후 2시 |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
조각가 김윤신&입주작가 이시평·이승진·김도영

작은 동네의 가치를 품은 도시

A City Embracing the Values of Small Neighborhoods

김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확산본부장
Jiwon Kim Director of the K-Culture Diffusion Bureau,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도시 생활에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마음을 끌고 눈길을 자극하는 공간과 사물에 언제든 매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감각을 깨우는 도시의 환경은 때때로 ‘평온한 안식처’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으면서도 도시의 속도와 밀도에 소진되지 않으며, 타인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일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는 사람들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일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삶의 방식을 나누고 인정하며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 브랜딩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디자인하고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흔히 로고, 슬로건, 색채와 같은 시각 체계와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활동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이나 질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다. 거리의 안내 표지판이나 랜드마크, 공원과 상점은 모두 도시를 경험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인터페이스다. 시민과 방문객은 이러한 접점을 따라 장소에서 장소를 이동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하며 각자의 도시 기억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도시 디자인의 과제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연결하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러한 도시의 가치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가 ‘타임 아웃’^{Time Out}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 50’이다. 이 목록은 미식과 쇼핑, 박물관과 미술관·공원처럼 눈에 보이는 도시의 자원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 어떤지까지 함께 묻는다. 생활비와 도보 접근성, 행복감, 공동체 의식처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평가

The greatest benefit of city life is the ability to be captivated at any time by attractive, eye-catching spaces and objects. Paradoxically, however, the urban environment, which constantly awakens our senses, sometimes fuels a longing for a “peaceful haven.” So, what would our dream city be like? It would be an inclusive city, ensuring that we can enjoy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daily life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city’s pace and density, and allowing us to naturally meet others and build relationships. Needless to say, such a city does not emerge on its own. A city is not merely a space where people experience happiness and pleasure, but it gradually takes shape through the process of sharing and acknowledging diverse environments and ways of life.

Urban design and city branding also need to be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When it comes to designing a city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we often think of activities that create a positive image for the city through visual systems—such as logos, slogans, and color schemes—and public design. However, designing a city is much more complex than establishing a single identity or order. Street signs, landmarks, parks, and shops are all large and small interfaces, allowing us to experience the city. Citizens and visitors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along these touchpoints, connecting different experiences and creating their own memories of the city. Therefore, the challenge of urban design lies in enabling people to experience diverse cultures, connect said cultures in their own ways, and build a network where different ways of life can coexist.

An interesting example of such urban values is the “50 Best Cities in the World” list published annually by *Time Out*. This list not only talks

에 포함된다. 좋은 도시란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기보다 살아가면서도 계속 탐험하고 싶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해 42위에서 9위로 33계단 뛰어오른 서울은 “만능형 도시”^{a master of all trades}로 소개됐다. ‘타임 아웃’은 사계절에 걸친 다채로운 문화와 여가를 그 근거로 들지만, 나는 이 ‘만능’이라는 평가를 조금 다르게 읽고 싶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매력을 갖췄다기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동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울의 면면을 이루는

about visible urban resources—such as cuisine, shopping, museums, art galleries, and parks—but also what it is actually like to live in those cities. Factors that contribute to quality of life, such as cost of living, walkability, happiness, and sense of community, are included in the evaluation as well. Rather than just a place with plenty to see, a good city is a place where we wish to keep exploring even as we live there. Jumping 33 spots from 42nd to 9th this year, Seoul was introduced as “a





덕분이라고 말이다. 성수·홍대·연남·을지로·한남·서촌·망원 등 이 미 외국인에게도 익숙한 동네가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수에서는 다채로운 소비문화를 만나고, 을지로에서는 오래된 산업과 새로운 창작 공동체가 뒤섞인 풍경을 경험한다. 서촌과 망원과 같은 동네에서는 오래된 일상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9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 서울 안에는 수많은 작은 도시가 포개져 있다. 그런데 ‘서울다움’은 이름난 동네보다 그리 널리 소개되지 않은 동네에서 더 절게 드러날 때도 많다. 널리 알려진 동네가 외부의 시선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로 읽히기 쉽다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동네에서는 아직 하나의 이미지로는 정리할 수 없는 일상의 다채로운 질감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누군가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서울의 어느 곳을 소개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역사 유적지나 활기가 넘치는 상업 지구보다 오래 살아 잘 알고 있는 동네를 함께 걸으며 소개하고 싶다. 그중 하나가 효창동이다.

효창동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동네다.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master of all trades.” While *Time Out* cites the city’s diverse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throughout the four seasons as the basis, I would like to interpret this “master of all trades” label a little differently. Rather than Seoul possessing all its charms in a single way, it is more about neighborhood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the facets of Seoul in their own way. This is why neighborhoods that are already familiar to foreigners—such as Seongsu, Hongdae, Yeonnam, Euljiro, Hannam, Seochon, and Mangwon—are increasing. In Seongsu, we will encounter a diverse consumer culture, while in Euljiro, we will encounter a view where old industries and new creative communities intermingle. In neighborhoods like Seochon and Mangwon, we will encounter traces of daily life in the past.

In this way, within Seoul, a massive city with a population of over nine million, countless small cities are layered upon one another. However, the “Seoul-ness” is often revealed more vividly in neighborhoods that are not as widely known as the famous ones. While well-known neighborhoods are easily perceived as a single image through the eyes of outsiders, in relatively lesser-known neighborhoods, we can get a closer look at the colorful textures of daily life, which still cannot be summarized into a single image. If asked which part of Seoul I would introduce to a friend visiting from abroad, I would prefer to take them on a walk through a neighborhood I have lived in for a long time and know well, rather than historical sites or bustling commercial districts. An example is Hyochang-dong.

Hyochang-dong is a neighborhood where multiple generations live together. While people in their 30s make up the largest demographic, it is home to a mix of people ranging from their 20s to their 70s. Time here begins at Hyochangwon, the burial ground of Crown Prince Munhyo, the young son of King Jeongjo. Hyochang Park, which endured dam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s later transformed into a burial ground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after liberation, holds layers of memories from various eras. If we take a full lap around the park, we will encounter the Kim Koo Museum and Hyochang Stadium, which is now used as a recreational sports facility.

However, the impression of Hyochang-dong is not formed by historical sites alone. Gongwon Supermarket, a long-standing local shop, has always had all kinds of ramyeon on display, waiting for customers.

차지하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다. 이곳의 시간은 정조의 어린 아들 문효세자의 묘역인 효창원에서 시작된다. 일제 강점기의 훼손과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의 묘역 조성을 거친 효창공원에는 여러 시대의 기억이 쌓여 있다. 공원을 끼고 크게 한 바퀴 돌다보면 백범김구기념관과 지금은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는 효창운동장도 만난다.

그러나 효창동의 인상은 역사적 장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오랜 가게 ‘공원슈퍼마켓’은 예나 지금이나 가판대 위에 온갖 종류의 라면을 준비하게 진열해두고 손님을 기다린다. 2011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빵집 ‘우스블랑’은 하루 여행자의 허기를 채워준다. 효창공원앞역 앞 김약국이 있던 자리는 밀크티로 이름난 ‘다과상사’가 달콤하고 씹싸콤한 맛으로 지친 이들을 달랜다. 1968년부터 입주민을 받은 효창맨션 아파트 한 채는 새로운 아파트들과 반세기 넘게 나란히 서 있지만, 그 풍경이 어색하지 않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한동네 안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동네의 분위기는 단단한 안정감마저 감돈다. 효창공원역시 그렇다. 어린 시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 다시 가족과 함께 공원을 들를 만큼 오랜 시간을 품은 장소다. 그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개인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 동네를 기점 삼아 숙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대학가의 활기가 이어지고, 반대편 용문동으로 내려가면 1965년 문을 연 것으로 알려진 용문시장과 오래된 생활 상권을 만난다. 효창동에서 삼각지와 녹사평·이태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도 멀지 않다.

서울 안에는 이처럼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오가며 뜻하지 않은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K-컬처에 열광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온 힘은 거대한 상징이나 화려한 오라^{aura}에 머물지 않는다. 걷고, 머물고, 먹고, 사고, 즐기는 일상의 장면 속에 담겨 있다. 작은 동네들이 모습을 드러낼수록 서울은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 그 풍부함은 단지 관광 자원이나 멋지게 디자인된 건축물과 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의 속도에 소진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식의 조건이 동네 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역할이라면 이런 일상의 장소들이 빠르게 소진되거나 새것으로 대체되지 않고,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드러내고 연결하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 서울다움은 장소와 사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관계를 맺으며 형성해온 일상이라는 평온하고도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The bakery Ours Blanc, established in 2011, satisfies the hunger of day trippers. The spot in front of Hyochang Park, once belonged to Kim Yakguk, is now home to Dagwasangsa, which is famous for its milk tea, soothing weary travelers with its sweet and slightly bitter flavors. One apartment building named the Hyochang Mansion, which has been housing residents since 1968, stands side by side with newer apartment buildings for over half a century, yet it does not look out of place. This is because the old and the new coexist within the same neighborhood without pushing each other out. Perhaps that is why the neighborhood exudes a solid sense of stability. The same goes for Hyochang Park. It is a place steeped in history, so much so that people who visited as children return as adults with their families. Since the park has not changed much over the years, personal memories naturally blend into family time. If we walk from this neighborhood towar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e will feel the liveliness of the college district, and if we head down the opposite direction toward Yongmun-dong, we will encounter Yongmun Market, known to have opened in 1965, and a long-standing commercial district. The walk from Hyochang-dong to Samgakji, Noksapyeong, and Itaewon does not take long either.

Within Seoul, there are hidden spots where we can encounter unexpected scenes like this as we move from one neighborhood to another. While many people are enthusiastic about K-culture such as K-pop and K-dramas, the very power that has shaped the image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does not lie in grand symbols or a dazzling aura. It is contained in the everyday scenes of walking, lingering, eating, shopping, and enjoying life. The more these small neighborhoods reveal themselves, the richer Seoul becomes. The richness does not merely come from an abundance of tourist attractions or beautifully designed buildings and objects, but from the fact that these neighborhoods provide a sense of respite, allowing daily life to be sustained without being drained by the city’s pace.

The value of urban design lies in revealing and connecting the values of these everyday places so that they can coexist, rather than quickly fading away or getting replaced by something new. Ultimately, I believe the “Seoul-ness” lies in the peaceful yet dynamic world of daily life, shaped by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ces and people, as well a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오래는
시대를
초월한다

서울
예술이
되다

한글
기대
락도

After



Curtain Call is Over,
But the Night is Young.

서울연극센터

2026.7.-12. 매주 토요일 22시

Theater

야간문화, 잠든 도시를 깨우는 활력

서울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해가 저물고 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뒤 불을 밝히며 시작되는 심야의 이야기는 잠든 도시를 다정하게 깨운다. 푸른 어둠을 아스라이 밝히는 네온사인, 퇴근길 끝자락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한강 변을 따라 흐르는 선을까지. 눈부신 도시의 밤으로 초대한다.

화려한 소비와 소소한 일상 사이 야간경제의 미래

우영진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야간경제’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활동의 시간적 확장이나 도심 쇼핑센터, 문화 공간에서의 화려한 소비를 떠올린다. 이는 분명 야간경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보통의 소비자들과 중산층에게 밤은 내일의 출근을 준비하며 가족과 온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그리고 여유로워지고 싶은 시간을 이기도 하다. 저녁을 먹고 식기세척기를 돌린 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그러다 잠깐 밀린 집안일을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말이다. 때로는 가끔 강남에서 친구를 만나 만화 카페도 가고 종로에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와 함께 청계천도 거닐고, 퇴근길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은 뒤 양재천을 조깅하고 시원한 라거 한 잔을 즐긴 후 사귀는 작은 즐거움 역시 생생한 야간경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서울에서 밤은 더 이상 낮의 연장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신만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야간경제를 논할수록 화려한 통계 이면에 있는 평범한 저녁의 의미 있는 밀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야간경제는 도시의 역동적 소비부터 개인이 누리는 온전한 휴식까지 삶 깊숙이 스며 있다.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배경에도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력이다.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주간 상권만으로는 성장의 여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도시가 활동하는 시간을 저녁과 밤으로 넓히는 것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매출의 기회를 여는 일이다. 비어 있던 낮 시간대에 방문과 채

류, 소비가 더해지면 같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이다. 노동 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이 부족한 사회에서 저녁은 시민이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몇 안되는 시간이며, 이런 가구 구조가 확산하면서 그 시간의 밀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운동과 문화, 휴식을 집 가까운 곳에서 누리도록 도시의 시간을 넓히는 일은 곧 시민이 저녁을 되찾는 일이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 야간경제

세계 주요 도시의 밤은 저마다 다채롭다. 뉴욕과 런던이 공연과 펍 중심의 상업 소비에 집중되어 있다면, 암스테르담은 야간시장Night Mayor 제도를 통해 야간의 활동과 소비 지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시·업체·주민이 함께 조율해온 거버넌스의 원조다. 도쿄는 도심 유흥과 주거지 인근의 일상적 휴식이 얹혀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풍경을 시민의 소비 지출액이나 유동 인구로 야간경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출액 중심의 지표는 화려한 상업 공간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조용한 휴식과 돌봄의 가치를 통계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야간경제의 다층적인 모습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간(가로축)과 활동 성격(세로축)을 유형화하기 위해 사분면에 그려보자. 아래 그림처럼 네 영역을 나누면 각 정책과 사업이 어느 시



간대, 어떤 가치를 겨냥하는지 한눈에 짚을 수 있다. 1사분면 ‘심야×문화’는 ‘깊은 밤, 온전히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 이름지어 볼 수 있고 24시간 웰니스나 심야 공연 등 도시의 정서적 앵커가 된다. 2사분면 ‘저녁×문화’는 수면 조깅이나 야간 도서관 이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퇴근 후 감성과 미학을 켜는 시간’이다. 3사분면 ‘저녁×소비’는 전형적인 ‘퇴근길 미식, 맥주 한잔’으로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해 지역의 먹거리를 야간 콘텐츠로 키우는 서울시의 ‘달빛야장’이 이 영역에 속한다. 4사분면 ‘심야×소비’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생생한 활력’ 유형으로 24시간 배달과 야시장 등 경제적 활력을 담아낸다. 네 영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한 사람의 일주일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 흐르며, 그렇게 만들어내는 밤의 총량은 절대 작지 않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시가 시민의 입체적인 밤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틀을 제공한다.

사분면 중 공공정책이 적극 개입할 영역은 ‘퇴근 후 감성과 미학을 켜는 시간’(2사분면)과 ‘깊은 밤, 온전히 나를 채우는 시간’(1사분면), 즉 문화와 휴식 영역, 그리고 이를 떠받쳐 주는 ‘안심 인프라’다. 상권의 소비는 시장이 스스로 활성화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조용한 휴식과 여가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어메니티가 먼저 제공돼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7979 서울 러닝크루’는 ‘퇴근 후 감성과 미학을 켜는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반딧불이 버스’와 ‘AI 기반 인파감지 CCTV’, ‘거점별 응급의료 대응체계’, ‘서울보안관’, ‘청결기동대’ 사업이 결합해 밤을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런 인프라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을 두려움의 시간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조용한 전환점이 된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 야간 근무자처럼 밤에 더 취약한 시민일수록 이런 기반의 체감도가 크다는 점도 정책 설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야간경제가 가져올 유연한 풍요

야간경제가 도시에 남기는 가장 뚜렷한 효과는 활력

Urban Vitality이다. 도시경제학에서 소비는 단순한 지출의 합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일차적 동력으로 이해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등이 ‘소비도시Consumer City’ 개념으로 정리했듯,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무엇을 생산하는지만큼이나 얼마나 매력적인 소비·여가의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식당·카페·공연장·상점의 활동은 거리에 사람과 불빛을 불러들이고, 조셉 제이콥스Joseph Jacobs가 말한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을 늘려 안전과 매력을 스스로 재생산한다. 소비가 유동 인구와 체류를 낳고 이것이 상권 매출과 도시의 매력, 나아가 관광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기여, 야간 소비 활동이 도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크다.

야간경제의 참된 지향점은 소비 지출 확대가 아닌 ‘삶의 호흡이 스며든 유연한 풍요’다. 이를 위해 첫째, 특정 거점의 화려함보다 골목 조명, 벤치, 도로 청결 등 도시 전체를 묵묵히 관리하는 행정의 성실함이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며 그 활력을 인접 상권과 생활권으로 확산시키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그 화려함이 빛을 발하려면, 동네 골목의 가로등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시민의 밤을 바꾼다는 기본이 먼저 서야 한다. 둘째, 심야무인 점포·펍·카페 등 밤에 문을 여는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도 있다. 이들 주변에 보안·조명 시설을 지원하고 야간 노동자 처우를 함께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런 민간 생태계는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속된다. 셋째, 도시가 성숙할수록‘Urban Maturity’ 밤에는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교차하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품어내는 공존 생태계를 가꿔야 한다. 혼자 걷는 사람과 무리 지어 노는 사람, 야간 근무를 마친 노동자와 늦게까지 노는 청년이 같은 거리를 불편 없이 나뉘 쓸 수 있어야 진짜 성숙한 밤이다. 결국 야간경제 정책의 성패는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속도로 밤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도시는 기본을 가꾸고 성숙함을 더할 때 비로소 삶의 호흡이 스며든 유연한 풍요를 안겨줄 수 있다.

어둠이 내리면 서울의 밤이 막을 올린다

10월 즐기기 좋은 서울의 문화 행사

박재림 [문화+서울] 에디터

공연이 끝나도 대학로의 밤은 계속된다. 대학로에서 공연을 즐기고 곧장 집으로 향하기 아쉽다면 조금 더 머물러보자. 서울문화재단은 공연 전후의 시간을 문화예술로 채우는 '대·락樂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로를 공연 '보는 곳'에서 하루를 '머무는 곳'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는 '뎡로마켓'에서는 예술가의 창작 재료와 작업 과정을 만나는 전시·워크숍부터 각종 마켓과 거리 공연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제철연극'이 본격적인 대학로의 밤을 연다. 제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를 뜻하듯, 연극의 '제철'은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바로 지금. 매주 토요일 서울연극센터 라운지에서 낭독과 토크·쇼케이스를 열어 곧 관객을 만날 작품을 미리 소개한다. 10월에는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묻는 연극 <더 스톤즈: 소년이 그랬다>, 새벽 4시에 멈춰버린 한 인물의 시간을 다룬 <심해: 새벽4시>를 비롯해 관객과 함께 놀이터를 누비는 장소 특정형 퍼포먼스 등 저마다의 색깔을 지닌 작품들이 기다린다. 밤 10시, 극장의 불이 꺼지면 무대는 대학로 전체로 확장된다. '애프터시어터'는 공연의 여운을 극장 밖으로 연결하는 심야 프로그램이다. 제철 먹거리와 함께 작



품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와 공연을 연결해 바라보거나 음악과 토크를 즐기며 대학로의 밤을 한층 길게 이어간다. 10월에는 <왕의 남자>와 <버드맨>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무비살롱과 뮤지컬살롱이 토요일 밤을 채울 예정이다.

대·락樂로: 제철연극·애프터시어터
~12.20 | 대학로 일대 | @seoultheatercenter

빛을 따라 걷는 한강의 낭만

선선한 가을밤, 한강은 거대한 야외무대로 변신한다. 노들섬에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열린다. 해가 진 뒤 섬과 한강 일대를 미디어아트와 빛 예술로 물들이며, 익숙한 수변 풍경을 색다른 장면으로 바꿔놓는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하늘까지 무대가 된다. 10월 9일

과 31일 열리는 한강 불빛 공연 드론라이트쇼에서는 드론 1~2천여 대가 밤하늘에 거대한 빛의 장관을 연출한다. 드론 쇼 전후로 공연이 이어져 한강에서 보내는 저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조금 더 느긋하게 걷고 싶다면 잠수교로 향해보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밤 10시까지 이어진다. 차량이 사라진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에서 달빛 소풍 쉽터와 라이브 공연, 달빛 식당 등을 즐기며 강바람과 함께 서울의 밤을 천천히 건널 수 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10.2~10.11 | 노들섬 | @mediaartseoul
한강 불빛 공연 드론라이트쇼
~10.31 | 뚝섬한강공원 | @seouldroneshow_official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10.25 |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 | @ddooddoo_festa

금요일엔 미술관으로 퇴근

금요일 저녁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 서울시는 '문화로 야금야금 夜金'을 통해 시립 문화시설의 문을 밤 9시까지 열고, 퇴근 후에도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넓히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비롯해 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남산골한옥마을·윤현궁·세종충무궁이야기·서울도서관 등 8개 시설이 참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는 10월 25일까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를 만날 수 있다.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으로, 회화와 부조·사진·드로잉·아카이브 등 170여 점을 통해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의 세계를 폭넓게 조명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여민공수: 백성과 함께 지킨



다》와 《서울도시계획 대관람》이 이어진다. 전자는 조선 후기 한양의 수도 방어 체계를, 후자는 1966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출발점으로 서울의 도시 변화를 돌아본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밤 9시까지 불을 밝힌다. 옥외 전시장은 밤 10시까지 개방하며,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로마 미술 특별전과 이슬람 미술 특별전을 여유롭게 거닐어볼 수 있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10.25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seoulmuseumofart
《여민공수: 백성과 함께 지킨다》
~10.25 | 서울역사박물관 | @seoulmuseumofhistory
《그리스·로마 미술 특별전》
~12.31 |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museumofkorea

서울은 지금 읽는 중

한양 도성 안은 지금 밤하늘을 벗 삼아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봄과 가을마다 열리는 서울야외도서관은 도서관의 공간을 건물 밖 도시로 확장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를 거대한 책 읽는 공간으로 바꾼다. 금·토·일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거나 잠시 앉아 야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속도가 한결 느려진다.

한편 서울광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10월에도 여러 차례 저녁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시청 앞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광화문 책마당, 청계천 물소리를 벗

삼아 ‘물멍책멍’을 즐기는 책읽는 맑은 냇가까지. 풍류와 독서를 한데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밤이다.

서울야외도서관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일 |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 | @seouloutdoorlibrary.s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10월 중 | 서울광장 상설무대 | @2026_cultureseoul

음악으로 채우는 가을밤

10월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국악이 나란히 가을밤을 채운다. 〈누구나 클래식 with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이 낯선 시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을 곁들인 공연이다. 10월 6일에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과 쇼스타코

비치 교향곡 5번을 들려준다. 관객이 원하는 금액을 직접 고르는 ‘관람료 선택제’를 운영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이에게도 문턱을 낮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을 차례로 만나는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M씨어터에서 이어진다. KBS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서울·부산·성남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하루씩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전석 1만 원이라 여러 무대를 골라 즐기기에 부담이 적다.

〈누구나 클래식 with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10.6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sejongcenter
2026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
10.6~10.17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sejongcenter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이용한다면 10월의 밤은 선택지가 더욱 넓어진다.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는 서울시극단 〈에너지〉가 10월 26일부터 무대에 오르고, 체임버홀에서는 16곡의 가곡과 16편의 시가 시간의 대화를 들려주는 〈가곡시대〉가 23일과 24일 열린다. 같은 달 열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도 놓칠 수 없다.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는 비눗방울 퍼포먼스와 설치미술의 경계를 환상적으로 허무는 〈소아페라, 인스톨레이션〉을 9일과 10일 만날 수 있다.

고전을 좋아한다면 예술의전당이 준비한 연극 〈유리동물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194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테너시 윌리엄스의 대표작으로, 10월 17일부터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전시로 눈을 돌리면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가 2027년 1월까지 이어져 공연과는 또 다른 밤의 선택지를 더한다. 더 많은 작품은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보자.

서울청년문화패스
@youthcultureseoul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
youthcultureseoul.kr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야간 비전’

사샤 오에다 멘도자에게 듣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Q. 암스테르담의 야간문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 행정부와 부시장의 자문관으로서 암스테르담시 최초의 ‘야간 비전(Night Vision)’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는 야간문화에 관한 도시의 포부를 구체적인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원과 공간, 부동산, 허가 절차, 주민과 야간문화 현장의 관계를 살피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야간문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야간문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보다, 이 분야가 계속



©City of Amsterdam



성장하고 실험하며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샤 오에다 멘도자Sasha Ojeda
Mendoz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야간문화 프로그램 책임자

Q. 암스테르담에서는 야간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어떤 일이 밤에 일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야간문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분 짓

는 건 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사회·문화적 환경입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도시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현하기 어려운 실험과 정체성, 공동체, 예술적 혁신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야간문화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클럽과 음악 공연장뿐 아니라 예술가, DJ, 기획자, 콜렉티브, 문화 기획자, 야간 노동자, 축제, 비공식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물리적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야간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정책 분야로 간주될 가치가 있습니다. 야간문화를 단순히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야간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체적인 조건(영업시간과 허가, 소음, 교통, 안전, 부동산, 주민과의 관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밤은 또한 도시에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실험과 자발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밤은 낮 동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일부 질서와 규범을 잠시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 기존 문화기관에서 자신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쿼어 공동체에게 밤은 일자리뿐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간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실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문화를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고유한 사람과 장소, 경제, 네트워크, 문화 생산 방식을 갖춘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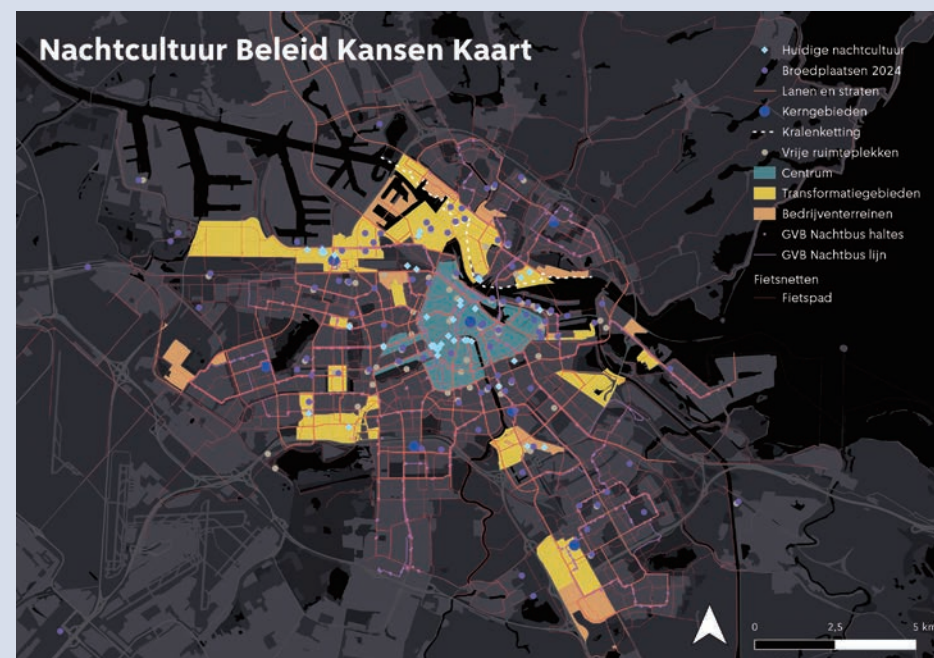
Q. 대표 제도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 야간문화를 충분히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조금입니다. 시장성이 충분히 따르지 않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180개가 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공간과 부동산, 허가 절차,

시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안에서 야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과 새로운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 소유 부동산, 지역개발 담당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과 야간문화 현장 사이에 신뢰를 쌓는 일은 당장 측정 가능한 수치와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중요도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야간문화는 본질적으로 여러 정책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단독으로 말아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 업무에서도 조정과 조율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한자리에 모으고, 각 부서가 고립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부서 간 차이를 없애는데 있지 않습니다.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갈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른 시점에서부터 차이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Q. 암스테르담은 도시의 활력과 시민의 삶의 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건강한 야간도시란 반드시 모든 게 밤새 운영되는 도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활동과 집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건강한 야간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객과 사업체뿐 아니라 주민과 야간 노동자의 필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활동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도시'라는 개념은 단순히 소비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과 사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은 야간문화가 도시의 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개발이 끝난 뒤에야 야간 생활을 고려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부터 야간문화를 함께 고려하면 공존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다만 도시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더 많은 주택뿐 아니라 더 많은 공원과 여가 공간, 문화공간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요.

Q. 야간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안이 우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적 가치의 기준선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그것은 특정 시점의 현장을 담은 스냅사진에 가깝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문자 수와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만, 그러한 수치만으로 야간문화의 모든 가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예술가를 위한 기회, 새로운 인재의 성장, 사회적 연결, 포용성, 문화공간의 확보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는 본질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훗날 중요한 예술가로 성장할 예술가를 처음 발굴한 그 장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정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니다. 다만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서울이 야간문화를 독립적인 문화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야간문화 비전도 관계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부시장과 의견을 나눈 여섯 차례의 대규모 간담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의 야간문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미 누가 야간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 활동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어떤 공간과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저라면 구조적 조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공간, 허가, 교통, 안전, 재원, 주민과의 관계 등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이 말하는 야간문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야간문화가 단순히 야간경제나 관광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된다면,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문화적 잠재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10년 뒤 암스테르담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에도 암스테르담의 야간문화가 여전히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문화기관부터 소규모 독립 공간과 새롭게 등장하는 콜렉티브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야간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도시를 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러한 공간들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도시 곳곳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야간문화를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간문화는 문화·사회·경제적으로 암스테르담을 암스테르담답게 만드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간입니다. 야간문화가 존재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정책적 목표도 실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야간문



©Asia Prints

화 정책의 다음 단계는 공간과 도시계획, 인프라를 비롯해 도시의 미래 발전 과정에서 야간문화가 차지할 위치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책 목표는 오늘날의 밤을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문화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학으로 들여다본 세계 도시의 밤

일본 도쿄 TOKYO, JAPAN

우리의 시선은 빛이 특히 집중된 한 부분을 골라 초점을 맞춘다. 그 지점을 향해 조용히 하강한다. 색색의 네온사인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 번화가라고 불리는 지역.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은 자정을 경계로 침묵하지만, 가게 앞 스피커는 여전히 기세를 잃지 않고 힙합의 과장된 저음을 거침없이 내뿜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 『애프터 다크』, 2004, 권영주 역, 비제, 2015.

©Nihon Grahics

미국 뉴욕 NEW YORK, UNITED STATES

뉴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활기 있고 멋진 밤의 분위기. 쉬지 않고 명멸하는 남자와 여자. 자동차들이 호기심 어린 눈에 주는 만족감이 좋아졌다. 나는 5번가로 걸어 올라가서 군중 속에서 낭만적인 여자들을 골라 몇 분 동안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즐겼다. 아무도 모르고, 반대하지 않을 일이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925, 한애경 역, 열린책들, 2011.

프랑스 파리 PARIS, FRANCE

별부터 가스등까지. 모든 게 상쾌한 대기 속에서 환히 빛났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과 도시에서 빛나는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 같았다.
햇빛으로 환한 대낮일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밤이 훨씬 더 유쾌하다.

기드 모파상, 『밤: 악몽』, 1887, 토노 베나비데스 그림, 송의경 역, 문학동네, 2013.

중국 상하이 SHANGHAI, CHINA

믿지 못하겠으면 지붕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보라. 아, 밤이다. 겹겹이 층을 이루며 이어져 있는 지붕들이 본탄^{本滩}의 서글픈 울음소리에 젖어 든다. 네온사인이 아름답게 빛나고 영롱한 구슬들이 빙글빙글 돈다.

진위형, 『변화1』, 2013, 김태성 역, 문학동네, 2023.



태국 방콕 BANGKOK, THAILAND

—왜 비 와? 건기라며.

—늦은 우기야.

—그게 건기인 거 아냐?

—늦은 우기도 우기인 건가봐.

박상영, 『늦은 우기의 비캄스』, 『대도시의 사랑법』, 창비, 2019.



물이 머물던 자리에서 예술이 흐르는 자리로

10주년 맞이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이정연·신소정·최유정·김용진·이서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센터양천팀

2016년 10월 8일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 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아지트'를 표방하며 개관했다.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발표한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처음 언급된 이후 201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서울 서남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김포가압장(1979년 개관, 2003년 폐쇄)을 개조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이었던 센터의 모델은 핀란드 헬싱키시가 운영하는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다.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조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총괄디렉터와 예술감독이 상주한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도 개관 후 매년 예술교육가Teaching Artist, TA를 선발해 예술교육 연구와 실험을 함께 하며, '상상하고, 탐험하고, 놀 수 있는' 예술교육의 무대를 만들었다.



2023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이하 양천 센터)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후, 센터에는 서남권 거점 공간이라는 역할이 추가된다. 2026년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서울을 5개 거점으로 나눠 양천(서남권)·용산(도심권)·강북(동북권)·서초(동남권)·은평(서북권) 센터 등 총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양천 센터는 어린이·가족·성인 등 전 연령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서울 서남권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관 후 7년간 운영한 '예술놀이LAB'을 통해 축적된 예술교육가 TA의 연구와 실험은 센터 내 여러 프로그램의 기반이 됐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폭을 넓히고, 가족예술축제 '톡톡'은 예술을 처음 만나는 문턱이 되었으며, '모두의 아뜰리에'는 일상의 감각 속에서 저마다의 예술적 시선을 발견하도록 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전시《끝없이, 물처럼Ever Flowing, as Water》은 예술을 통해 익숙한 공간과 시간을 다시 읽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자리다. 전시를 통해 양천 센터가 만들어갈 또 다른 시간과 그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예술교육의 풍경을 기대해본다.

가압장 흔적 위 10년간 쌓아 올린 지금의 양천

양천 센터는 실내 공간과 함께, 과거 가압장의 흔적을 간직한 야외 수조를 품고 있다. 특히 야외 수조는 센터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과거 물을 공급하던 수조는 현재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펼쳐지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벅커처럼 움푹 들어간 독특한 구조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기존 시설의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또한 센터를 둘러싼 녹지와 인접한 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이룬다. 이러한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예술이 결합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양천의 10년을 만든 다섯 가지 경험

1 예술가의 새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시스템
국내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센터로 개관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센터에는 고유한 운영 체계가 있었다. ‘예술놀이LAB’을 통해 예술가가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커리어 전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예술가를 선정하고, 상주 연구실과 교보재 등을 지원해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험하도록 했다. 7년간 38명 예술가는 예술교육가^{TA}로서 창작을 넘어서 새로운 장르 실험, 기획, 연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지역 주민 대상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시간 이들이 남긴 고민과 실험의 결과물은 지금 센터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2 우리가 궁금했던 예술, 누구나 행복한 예술
서울문화재단 대표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는 5개 예술교육센터가 통합 운영하며, 시민

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자 각 센터의 특색과 장르 다양성을 반영한 예술교육 사업이다. 양천 센터는 4개 센터에 앞서 예술교육센터의 포문을 열며 무수히 많은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에 2026년 봄 시즌까지 8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센터 인근의 자연과 이색적인 공간인 야외 수조를 활용,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회화·공예·사진·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 프로그램은 양천 센터만의 색깔을 담고 있다. 더불어 평소 궁금했던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과 시각예술 장르를 심도 있게 접근하는 마스터 프로그램 역시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끌어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야외 대규모 공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주말 늦은 오후까지 예술로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3 마법 같은 하루에서 일상의 예술로
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더욱 유연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특별한 사업이 있다. 단 하루의 축제를 통해 ‘즐거움 예술’이라는 즉각적인 감동을 선사하고, 이로써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술교육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하는 관문 역할의 프로그램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예술힐링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축제, 전시, 공연예술 놀이터 등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또한 영유아를 비롯한 대상 특화 프로그램과 전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 워크숍을 운영하며 양천 센터가 추진하는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해왔다. 올해 5월에는 ‘예술힐링놀이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족예술축제 ‘톡톡’을 선보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 첫 경험’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10여 개 장르 35개 프로그램이 센터와 인접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온종일 펼쳐졌다. 축제에서 경험한 하루의 감동이 양천 센터의 깊이 있는 예술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것, 가족예술축제 ‘톡톡’이 만들어가는 즐거운 예술의 시작점이다.

4 내 방식으로 시작하기
한 사람의 감각과 선택은 어떻게 하나의 예술 경험

이 될까. ‘모두의 아뜰리에’는 예술가의 작업 방식을 공간에 펼쳐 놓고, 시민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보고, 만지고, 생각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마키토이 작가와 협업한 〈오늘의 색, 오늘의 기억〉프로그램에서 색을 고르고 컬러링 카드에 남겨 그날의 감정과 기억을 들여다봤다. 하반기에는 이타미준건 축문화재단과 센터 곳곳을 살피며 빛과 바람, 자연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해 나만의 건축 모형으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같은 재료와 공간을 마주해도 저마다 눈길에 머무르는 곳은 다르다. 예술가의 작업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만의 해석 방식이 조금씩 드러난다. 그렇게 나의 시선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세계를 넓혀 가는 것. ‘모두의 아뜰리에’가 이어가고 싶은 경험이다.

5 양천을 다시 읽는 전시
오래 보아온 공간도 작품을 사이에 두면 낯선 얼굴을 드러낸다.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 《끝없이, 물처럼》에는 송석우·송주형·전혜주 세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양천 센터라는 장소를 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다. 한때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던 김포가압장이 오늘의 예술교육 공간으로 바뀌어온 시간은 작품을 둘러싼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 세 작가는 모두 양천 센터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만난 경험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만난 이들을 다시 작가의 작업으로 마주하게 된다. 지하 1층에는 송석우의 사진, 송주형의 미디어 작업, 전혜주의 설치 작품이 놓인다. 송석우는 인물과 공간 사이 거리와 긴장을 포착하고, 송주형은 겹쳐진 이미지와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만든다. 전혜주는 반복되고 증식하는 식물의 형상을 통해 풍요의 이미지와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서로 다른 세 작업이 한 공간에 놓이며 저마다 다른 시선과 감각을 펼쳐 보인다. 전시는 야외 수조로 이어진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소 무심히 지나던 외벽이 해가 지면 미디어 작품의 화면으로 바뀐다. 영상이 벽면에 비치면서 거친 표면과 건축의 규모도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개막일에는 공동기획자 임종은과 세 작가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리



고, 이어 야외 수조에서 송주형과 전자음악가 하임^{hahim}의 미디어·사운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끝없이, 물처럼》은 익숙한 양천 센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시다. 작품을 따라 실내와 야외를 오가는 동안 오래된 건물의 흔적과 지금의 풍경이 겹쳐진다. 그리고 10년을 지나온 공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면을 발견하는 경험은, 앞으로 이곳에 더해질 다음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서울형 예술지원 3.0이 그리는 2027년의 변화를 미리 만나다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협력관

막이 내리면 무대 위의 시간은 어디로 갈까. 몇 달을 매달려 완성한 작품이 단 한 번의 공연이나 전시로 끝나고, 예술가는 다음 작품을 위해 또다시 처음부터 예산과 공간을 구하러 나서야 하는 일. 오랫동안 예술 현장에서 반복돼 온 이 익숙한 장면은, 서울문화재단이 새로운 지원 체계를 설계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이었다. 지원은 계속 늘어났는데, 왜 그 성과는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끊어진 이야기, '예술지원'을 흐르게 하다

서울문화재단은 해마다 장르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원 사업을 다듬어왔으며, 2026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동안 35회에 걸쳐 164명의 예술인과 현장 관계자를 만났고, 최근 3년간 쌓인 자문회의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으며, 국내외 관계 기관의 지원 체계도 두루 살폈다.

그렇게 들여다본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그 안에서 세 가지 틈이 발견됐다. 신진에서 유망·중견으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헐거워 창작이 발표 이후 쉽게 소멸했고('단절'), 창작 지원·공간 운영·유통을 각각 다른 사업이 따로 맡다보니 예술가 한 사람의 활동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으며('분절'), 국비 보전이 끝나가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굴절'). 그래서 서울형 예술지원 3.0 모델은 이 세 가지 틈을 메우는 데서 출발한다.

3.0 모델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바뀐다. 예술가가 필요한 지원을 찾아 연결되는 경로를 '이음', 그 지원을 통해 성장하며 다음 창작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다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단이 가진 공간과 교육, 플랫폼과 유통 같은 자원이

결합하는 것을 '화음'이라 이름 붙였다. 선정과 발표에서 멈추던 지원에 물꼬를 트고 흐름을 만들어, 하나의 작품이 서울의 예술적 자산으로 쌓여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도 마련됐다. 예술가의 생애주기와 창작주기에 맞춘 신뢰 기반의 지원 체계를 만들고, 창작의 완성을 초연에 그치지 않고 재발표와 관객 개발, 유통·확산까지 넓히는 순환 모델을 구축하며, 공간과 네트워크, 교육과 데이터, 재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

합 플랫폼형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그간 막연하게 쓰여온 '유통'과 '확산'의 의미도 새로 정리했다. 서울형 유통은 작품이 서울의 무대와 전시장에서 관객과 만나 완성도와 기능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축적된 뒤 재공연이나 재전시 등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과정이며, 확산은 그렇게 검증된 작품이 더 넓은 관객과 지역, 세계로 접속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늘려가는 일이다.



2027년,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런 연구 결과는 2027년도 통합 공모부터 실제 변화로 나타난다. 먼저 예비 단계부터 원로에 이르는 6단계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연결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고 다음 창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연간 지원사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술지원 로드맵을 제공하고, 경력과 활동 단계, 창작 계획에 맞는 사업을 추천해주는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 찾기’ 베타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창작공간, 교육과 피드백, 홍보와 발표, 플랫폼과 네트워크 등 창작의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하나의 지원사업이 결과 보고로 끝나지 않고 창작공간·후속 프로그램 등 다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넓힌다. 예술기반지원 RE:SEARCH 선정자를 대상으로 서울무용센터와 금천예술공장 기획입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그 예다. 예술창작지원 역시 분야별 현실을 반영해 시각예술에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이들을 위한 기획자 트랙이 생기고, 문학은 창작공간 입주와 웹진 [비유] 게재로 지원의 경로를 넓힌다.

또한, 창작 성과가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한 창작물이 한 번의 발표로 그치지 않고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예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평가해 창작 이

후의 다음 기회로 연결하는 후속지원 체계를 갖추나간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기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매칭 이전부터 서로의 활동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매칭데이’를 신설해 매칭 절차를 개선한다. 공간과 단체의 연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의 마지막 자리에는 결국 관객이 있다. 재단 소셜미디어 채널과 월간 [문화+서울], 웹진 [비유] 등 재단이 보유한 매체를 통해 선정작과 예술가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지원 사업과 기획 사업을 잇는 시도도 이어진다. 원로 예술인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마스터피스 토크’로 확장해 시민과 예술 현장에 소개하는 것이 한 예로,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넓혀간다.

서울예술정보플랫폼 ‘스파크SPAC’에서는 재단 지원사업 선정작은 물론 자치구 문화재단의 기획 공연 등 서울의 다양한 공연·전시·축제 정보를 한데 만날 수 있다. ‘서울예술취향지표SAT’와 AI 큐레이션은 시민 각자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추천해 예술과 시민의 접점을 넓혀준다.

이외에도 2027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어텀페스타 기간에 공연되는 작품은 함께 홍보해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서울문화재단 글로벌 셀렉션을 통해 해외 예술기관·플랫폼과의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지원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세계 무대로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예비부터 원로까지, 작업실에서 무대까지, 서울에서 세계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은 이제 지원금을 배분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예술가의 다음 걸음과 작품의 다음 무대를 함께 그리는 일로 나아간다. 막이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무대, 그 변화는 2027년 이 도시의 예술 현장에서 시작된다.

2027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1차 통합 공모 안내
통합공고 | 9월 30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업별 상이
결과발표 | 2027년 1월 중순 예정

다이애나, ‘마중의 경제학’을 다시 묻다

조원경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작가 앤드루 모턴Andrew Morton은 저서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Diana: Her True Story』1992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데렐라였던 한 여인의 처절한 내면을 세상에 드러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세인트폴 성당 결혼식은 20세기 최고의 동화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결핍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인간 다이애나의 비명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왕관 속에 감춰진 지독한 소외와 무관심이

한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을 ‘공공재’로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학적 비극의 전형이다.

무관심은 현대 부부들 사이에 헌신짝처럼 널려 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와 소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한 남편이 상담 전문가와 나누는 대화는 우리 시대의 메마른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집은 그냥 하숙집 같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예술가 이름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요?”라는 항변은, 관계 유지에 투입해야 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같다. 부부 사이의 상처는 사랑 없이 상대를 대할 때마다 생겨나는 흉터와 같다. 무관심이 쌓이면 소통의 통로는 막히고 화해의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때는 상대가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라며 먼저 마중을 나가던 뜨거운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철 지난 옷처럼 퇴색하고 만다. 결혼은 승리가 아니라 지속에 관한 것이다. 서로를 향해 달려가던 ‘마중의 경제학’이 멈추는 순간, 가계라는 경제 단위는 정서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다. 다이애나의 삶 역시 이러한 무관심과 소외의 극단에서 시작됐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과 신데렐라의 환상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Alan Krueger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고안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계층 이동의 사다

리는 끊어지고, 부모의 소득이 자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이론이다.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처럼, 유치원 보모인 다이애나가 왕세자빈이 된 사건은 전 세계 대중에게 이 사다리를 단숨에 뛰어넘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왕실이라는 최상위 계층으로의 진입은 행복의 담보가 아니었다. 찰스 왕세자는 첫사랑 카밀라를 잊지 못한 채 다이애나를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인형이자 전략적 자산으로만 취급했다. 다이애나는 훗날 “세 사람이 함께한 결혼이라 좀 뽀뽀했다”고 냉소적으로 고백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넘어선 기만적 계약이었다. 대중이 본 것은 에메랄드 안경을 쓴 화려한 왕세자빈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진실은 거식증과 우울증으로 얼룩진 한 여인의 고독한 섬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용이 머무는 자리가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문제다. 경제학적으로 다이애나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와 같았다. 누구나 그녀의 패션을 즐기고, 그녀의 미소를 소비하며, 그녀의 사생활을 타블로이드지를 통해 관람했다. 공공재의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녀라는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었지만, 이 공공재적 성격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부정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가져왔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수요가 폭증할수록 파파라치의 추격은 집요해졌고, 출판업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녀가 대중에게 즐거움을 줄수록 그녀 개인의 리스크와 스트레스는 폭증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그녀라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대중은 즐거웠지만, 그 대가는 오롯이 다이애나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돌아갔다. 결국 파리의 지하 터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는, 과도한 수요가 공급자를 파괴해버린 최악의 시장 실패이자 사회적 손실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다시 마중 나가는 마음을 위하여

앤드루 모턴이 기록한 진실 중 가장 애절한 대목은 파키스탄 출신 의사 하스나트 칸 Hasnat Khan과의 사랑이다. 다이애나는 왕세자빈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좁은 아파트에서 그의 옷을 다려주고 접시를 닦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꿈꿨다. 그녀는 그에게 ‘DDG(눈이 부실 정도의 멋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필사적으로 결혼하려 했다. 이는 사회적 지위라는 막대한 자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었던 정서적 효용의 극치였다. 사랑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이애나가 칸의 좁은 아파트에서 찾으려 한 것은 왕실의 금식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귀를 기울이는 소박한 대화였다. 비록 그녀의 사랑은 결실을 보지 못했고 끝내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자식들에게 이어졌다. 윌리엄과 해리는 어머니의 불행을 반면교사 삼아 신분이 아닌 진심을 따르는 결혼을 선택했다. 선대의 불행이 경로 의존성을 깨고 자식 세대에서 축복으로 승화된 것이다. 앨런 크루거가 살아 있다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무모한 집착이나 과시적 자산

으로서의 사랑은 결국 파국을 부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평범하고도 정직한 교환에서 옵니다.” 다이애나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소중한 사람을 위해 먼저 마중 나갈 준비가 돼 있는가. 사랑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나 화려한 왕실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슬픈 영혼을 달래주고, 퇴근길 현관문 앞에서 “왔어?” 하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 작은 배려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귀한, 인생의 진짜 수익률이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파탄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마음은 왕족이나 일반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밤하늘의 별이 된 다이애나의 미소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인다. 사랑 앞에 더 용감해지고, 더 많이 마중 나가라고 말이다. 이제 우리는 무관심의 헌신짝을 치우고, 다시금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사랑, 신기루가 아닌 실체의 행복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크루와 걷는 시민이 함께하는 법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런던 북쪽 퀸스파크라는 작은 지하철역을 나서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출구를 나오면 바로 좁은 인도로 이어지는 작은 역이었는데, 마침 스무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앞을 한꺼번에 뛰어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흔히 ‘러닝 크루’라고 부르는 러닝 클럽이었다. 계단을 올라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출구 앞에 멈춰 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길어야 몇 초였을 것이다. 러너들은 금세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별일 아닌 장면이었지만 서울이라면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러닝 크루의 민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러 명이 횡대로 뛰면서 보행로를 막거나, 한강 산책로에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하거나, 좁은 트랙을 단체로 차지한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2024년 서울 반포종합운동장에서는 60명 넘는 러닝 크루 때문에 혼자 걷거나 뛰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서초구가 트랙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달리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2024년 토론토에서는 대형 러닝 크루의 보도이용 인원을 제한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30명가량의 러너가 인도를 달려오다 산책 중인 작은 개를 걷어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시민은 큰 그룹이 길을 점령하거나 길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친다고 불평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행자를 만나면 대열을 좁히고 수신호를 사용한다는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뉴욕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도시 전문 매체 ‘커브드Curbed’에는 제목부터 “러닝 클럽 혐오자The Run-Club Haters”인 기사가 실렸다. 브루클린과 센트럴파크에서 대규모 러닝 크루가 길을 차지하면서 보행자는 물론 혼자 달리는 러너들까지 불편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러너들도 러닝 크루를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다. 도시의 길에는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흐름이 있다. 보행자와 자전거·자동차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에 맞는 나름의 규칙도 존재한다. 여기에 스무 명, 서른 명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집단이 갑자기 들어오면 기존의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교통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러닝 크루 문화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운동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Strav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러닝 클럽 참여는 59% 증가했다. 조사 응답자의 58%는 운동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술집보다 운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경향도 강했다. ‘스트라바’가 그해 보고서에 붙인 표현은 아예 “러닝 클럽은 새로운 나이트클럽Run club is the new nightclub”이었다. 건강한 도시 문화다.

런던의 여성 러닝 그룹인 ‘나이트 클럽The Night Club’은 혼자 밤길을 달리면서 위험과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만들었다. 런던에서 일찍 해가 지는 겨울이 되면 퇴근 후 혼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처음에는 아홉 명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고, 지금은 글로벌 투어까지 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 술을 마시는 대신 몇 킬로미터를 함께 달린다.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혼자 뛰기 불안한 사람에게는 안전도 제공한다. 대도시에서 새로 등장한 사고 문화 가운데 그만큼 건강한 형태도 드물다. 문제는 새로운 행동이 등장하는 속도를 도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금은 자전거 천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암스테르담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1960년대 이후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좁은 도로를 둘러싸고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이 심해졌다. 1970년 한 해에만 암스테르담에서 교통사고로 114명이 사망했다. 시민의 항의가 이어졌고, 시는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일방통행과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고 자전거도로를 늘려가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1982년 암스테르담시는 암스텔강 다리에서 자동차 차선 두 개를 없애 자전거 공간으로 바꿨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운전자들이 새로 생긴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 경로를 바꾸면서 교통 흐름은 다시 안정됐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고 서로 양보해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기존의 질서와 충돌했고, 시민과 정부가 그때마다 규칙과 공간을 다시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다.

서울에서도 이미 비슷한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 러닝 크루를 운영하면서 ‘런터켓’이라는 러닝 에티켓을 함께 가르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그룹으로 한 줄로 달리고, 속도를 낮추고, 소음을 줄이고, 수신호로 주변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러닝 크루를 없애는 대신 러닝 크루가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규칙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런던의 작은 지하철역 앞에서 러닝 크루가 지나가는 몇 초 동안 사람들은 잠시 길을 양보했다. 그 몇 초의 불편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 대신 거리에서 만나고, 혼자 뛰기 불안한 시간에 함께 운동하고,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한 현상 자체를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도시문화에는 거의 언제나 마찰이 따른다. 기존의 길과 규칙은 그 행동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존 이용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러닝 크루의 매너 논쟁은 그런 과정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행동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패할 시간을 지켜주는 일

박명진 NC문화재단 이사장

정해진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할 결과물도, 수료도, 평가도 없는 곳을 교육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프로젝토리 PROJECTORY’는 조금 낯선 이 질문에서 시작했다.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며 재단이 오래 고민한 것도 무엇을 더 채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인가였다.

프로젝토리의 멤버인 청소년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정하고 필요한 도구와 사람을 찾아 나선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잠시 멈춰도 되고, 다른 길에서 다시 시작해도 된다. ‘크루’로 불리는 어른은 안전과 장비를 살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대신 정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완성했지만큼, 무엇을 궁금해하고 시도했는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다시 나아갔는지가 중요하다.

2012년 설립된 NC문화재단은 2017년 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

는가’를 물었다. 여러 답을 살펴본 끝에 마음에 남은 것은 무언가를 더 가르치는 일이었다. 청소년이 자기 안의 관심을 발견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그렇게 2020년 대학로에 프로젝트리의 첫 문을 열었다.

그 선택의 바탕에는 창의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방향을 선택하며, 실패한 뒤에도 다시 시도하는 힘에 가깝다. 지금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활동 하나를 보태는 일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인지도 모른다.

그런 시간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필요하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세상에서 시험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작품을 구상하는 능력만큼 그것을 실제 무대에 올려볼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연장과 제작비, 관객을 만날 기회가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한 번의 실패는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되곤 한다.

2025년 시작한 ‘STAGE 100’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청년예술인이 완성도나 흥행 가능성을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작업을 무대에서 시험하고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NC문화재단의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음악으로 시작해 연극까지 영역을 넓혔고, 선발팁에는 공연장과 제작비는 물론 홍보, 조명·음향, 운영 등 공연에 필요한 손길을 함께 보탠다.

무대를 내어주는 방식도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음악 분야의 청년 아티스트는 약 90분 동안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펼친다. 연극 분야에서는 비정형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온 단체가 한 달간 연극제에서 각 3회 공연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미 완성된 작품을 골라 소개하기보다, 창작자가 직접 부딪치고 관객의 반응을 만나며 다음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험실에 가깝다.

프로젝토리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하는 시간’을 건넨다면, STAGE 100은 청년예술인에게 ‘발견한 방향을 세상 앞에서 시험하는 기회’를 건넨다. 대상과 형식은 다르지만, 두 사업은 하나의 믿음으로 이어져 있다. 창의성은 정답을 가르쳐 만들어내는 결과라기보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천천히 자란다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을 어떻게 오래 지켜낼 수 있을까. 공공 재단은 공적 자원이 어디에, 왜 쓰이는지 시민에게 설명하고 사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기업 재단은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시도를 조금 먼저 시작하고, 실패의 부담을 나누어 맡아볼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과 시간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그 차이에서 협력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NC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8월 업무협약을 맺고, STAGE 100에서 만난 작품을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전 쇼케이스 ‘제철연극’과 연결하기로 했으며, ‘대·락樂로’ 캠페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업 재단이 아직 작은 가능성에 첫 무대를 내어준다면, 공공 재단은 그것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다음 기회로 이어지도록 길을 넓힌다. 서로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기보다, 각자의 시간표로 하나의 성장 경로를 함께 만들어가는 셈이다.

지난 5년간 프로젝트리를 거쳐 간 청소년 1,500여 명은 약 2만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5만 5천 시간의 탐색과 실험을 이어왔다.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중 누가 자신의 관심을 발견하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었는지는 지표만으로 알기 어렵다. STAGE 100 무대에 오른 청년예술인의 작업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모든 성장에는 결과로 증명되기 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 재단이 그 시간을 먼저 열고 공공 재단이 그 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을 더 넓은 사회로 이어갈 수 있다면, 창의성은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연경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극장운영부 과장

박채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박해주



최근 모두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작품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공연한 〈크립스Creeps〉는 1970년대 초 북미에서 발표된 희곡으로, 보호 작업장 화장실에 모인 지체장애인 남성 다섯 명이 자신의 삶과 자아실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쓰인 작품이지만 ‘장애인 역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에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다기보다,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되는 공연장을 만들자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선정하거나 공연을 기획·제작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나요? ‘장애를 어떤 시선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가’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나 존재를 직접 주장하는 작품만을 찾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작품에 관심을 둡니다. 제작 과정에서 신경쓰는 부분은 참여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동선 같은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심리·인지적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정해진 매뉴얼을 적용하기보다 작품마다 참여자들과 조율하며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갑니다. 거의 모든 제작 과정이 새로운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등 접근성 서비스가 작품의 일부로 활용된 사례도 있을까요? 모두예술극장은 접근성을 특정 담당자의 업무로 분리하기보다 기획과 홍보·마케팅, 하우스 매니지먼트, 관객 서비스 등 각 업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접근성 자체가 작품의 미학이나 표현 방식이 되는 ‘창의적인 접근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와 네덜란드 공동 제작 공연을 소개하며 음성 해설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어 버전에서는 단순히 장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적 성격을 더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본을 수정해 음성 해설 자체가 작품의 일부처럼 들리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 방식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 관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접근성 서비스 역시 각 작품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계속 찾아가며 발전하는 셈입니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일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장애인 예술인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작업 방식을 맞춰가며 공연을 만들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든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장애인 예술인이 예술을 하기 위해 극장에 와서 무사히 작업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실감하기도 하고, 관객층이 조금

씩 넓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큰 기쁨입니다.

이곳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11월 모두예술극장에서 〈나는 태어나지 않기로 했다〉를 선보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 바깥세상을 인터뷰하고 자신의 탄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SF적 설정의 작품입니다.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과 농인 서사가 포함돼 있어 농인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삶 속에 장애인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현장에서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며 느끼는 ‘접근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접근성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연을 각자의 방식으로 충분히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접근성이란, 완성된 답을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예술가와 관객에 맞춰 계속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장애 예술가들이 장애인 예술인의 작품을 보며 익숙하지 않았던 감각과 표현 방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접근성은 누군가의 편의를 넘어 공연예술의 감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예술극장이 국내 공연예술계 내에서 어떤 공연장이기를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 예술 창작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인이 아직 많지 않고, 특히 작가나 연출가·안무가처럼 작품의 원천을 만들고 전체를 이끄는 창작자는 더욱 부족합니다. 모두예술극장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이 계속 탄생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장애인 예술 생태계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예술’이라는 구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예술가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공연예술계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남의현입니다. 202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관희는 거울 거울은 관희」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설 속 한 장면을 처음으로 완성했을 때의 기분은 생각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장면 하나를 만드는 데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서 또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또 신났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더 써보라며 부추긴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낀, 자각하게 된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해매게 됩니다. 저는 예술가라는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얼마 전까지 저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더 컸습니다. 직장에서는 소임을 다하고, 퇴근하면 집에

서는 소설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다보니 사는 게 힘들고……. 작년까지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올해엔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요즘은 소설을 쓸 때 덜 힘들고 그래서 좋아요. 아무래도 저는 소설이 저에게 순수하게 즐거운 놀이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굳이 제 안에서 예술가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는다면, 소설 쓰기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것은 선뜻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이따금 저에게 되돌아오는 소설은 「온리 차일드」입니다. 「온리 차일드」는 외동으로 태어나 외동으로 죽을 차영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차영이 한 사람에 대한 소설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썼습니다. 하나뿐인 친구이자 연인인 시온이가 죽은 이후에 차영이가 어떻게 자신의 슬픔을 내버려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쓰는 내내 차영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기를 응원한 것이 기억납니다.



요했던 이야기하기의 방식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어’ 하는 단호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문장들은 큰 힘을 가져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장들이 역시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버린 일들을 두고 ‘그 것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감각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1934년에 태어난 한 여자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느낍니다. 하루에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봐,”로 시작하는 문장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요즘 소설 쓰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답을 듣기 위해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얀 공이 무언가를 박살 내고, 어떤 공간에 떨어지고, 그 공간의 안과 밖에 빛이 가득하고……. 그러한 근원적인 이미지들이 왜인지 제 안에 있고, 또 사라지지 않아서 그것들을 언어로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제 쓰기의 동력 중 하나였어요. 지나치게 자기 만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는 그 이미지들이 소설 안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이어지기도 한다고 느낍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튼튼하거나 지나치게 연약한 사람의 형태로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작품은 펴자마자 단숨에 읽은 한 권의 책인데, 루이지 피란델로Luigi Pirandello의 『어느 하루』입니다. 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책장을 연달아 넘기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꽤 단순한데, 요즘 제게 필

거울을 봤는데 내가 귀여워서 깜짝 놀랐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관희가 더 귀엽긴 해. 관희랑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겼지만 어떤 부분들은 명확히 다르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만큼이나 설명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극장에서 <개를 위한 노인 이름>을 두 번째로 관람하기 전까지, 우리조차 우리에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과 두 번째 보았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달랐다. 첫 번째 보았을 때는 슬프고 쓸쓸했는데 두 번째 보았을 때는 쓸쓸하고 슬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르다. 매일 밤마다 생각한다. 관희가 내 위에서 내 아래로 내려갈 때, 내가 관희 위에서 관희 아래로 내려갈 때 곱곰이. 세면대에 거품을 뿜고 젖은 칫솔도 잘 걸어두고 침대로 갔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차례인데, 그러니까, 누워있는 관희 위에 올라타서 가만히 지켜보기. 귀여운 관희 얼굴 위에 귀여운 내 얼굴, 그러니까 관희와 나는 서로의 얼굴. —「관희는 거울 거울은 관희」

시온이가 죽기 직전 농담을 했는데 차영이는 웃느라고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어버렸다. 단번에 알아듣고 웃었으니까 둘이 평소에 나누었던 농담이겠지? 그리고 어려운 농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영이는 평소에 머리를 잘 안 쓰니까. 차영이는 사실 웃기 싫었다. 시온이가 한 말 까먹을까봐. 그래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시온이가 슬퍼할까봐. 웃지 않는 차영이 얼굴 보고. 웃는 차영이 얼굴도 못 보고 시온이가 숨을 거두었으니까 차영이는 아 괜히 웃었나 싶었다. 그리고 눈 감은 시온이 얼굴 내려다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또 한발 빠르군. 잠시 뒤에 또 생각을 했다. 또 한발 느리군. 늘 시온이가 먼저 걷고 차영이가 뒤따라 걷고, 시온이가 먼저 눕고 차영이가 뒤따라 눕고. 너의 머리통이 반 조각나면 나의 것도 그렇게 할까? 이런 농담도 시온이가 먼저 하고 차영이가 뒤따라 하고. 아냐, 나의 머리통이 반 조각나면 너의 것을 그렇게 해줄게. —「온리 차일드」

시를 쓰고 서점을 운영하며 북페어를 만드는 임주아입니다. 전주에서 서점 ‘물결서사’를 운영하고, 북페어 ‘전주책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에 세 달간 머물렀습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연희문학창작촌은 차분하게 시를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돼주었어요.

고등학생 때 빈 공간이 많은 수학 모의고사 시험지에 짧은 일기나 좋아하는 문장을 생각나는 대로 적곤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들켰는데, ‘네가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지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꿈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세 시간 넘게 떨어진 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했고, 학교 도서관에서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학보사 생활에 폭 빠져 취재하고 기사를 쓰며 대학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때부터 사람과 사회를 오래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네요.

2015년부터 작품 활동을 했지만, 한동안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동료들과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에 서점을 열고, 소셜미디어와 메일링을 통해 매주 시를 연재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비로소 저도 스스로를 시 쓰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설명되던 동네를 직접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판단에 기대기보다 그곳에 머물며 사람과 동네를 살피던 그 시간은 시를 쓰는 태도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쓴 시들을 모으고 고쳐 첫 시집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겨울』을 냈고, 시집에는 선미촌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올해 여름 출간한 앤솔리지 시집 『햇생강이 나오면』에 수록된 최근 작「습설」과「시옷이 사라졌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습설」은 겨울

임주아

b.1988

문학/시

@zoocalim

2021·2026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2026 일본K-BOOK 페스티벌 참가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처음 보고 언젠가 꼭 제목으로 써보고 싶었던 말인데요. 가볍지만 물기를 머금으면 무거워지는 젖은 눈을 생각하며 아버지와의 세 가지 기억을 썼습니다. 교도소와 고사장 앞 여관 등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길지 않은 시인데, 제 생에서 어쩌면 가장 습설 같던 이야기입니다. 「시옷이 사라졌다」는 제가 좋아하는 두 창작자가 만든 연극 작품에서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시옷을 소재로 여러 장면이 이어지는 시입니다. 『햇생강이 나오면』에는 시마다 기획위원이 쓴 짧은 글이 함께 실렸는데, 제 시에 대해서는 “슬픈 이야기를 안 슬프게 하는 사람은 슬프다. 장황하게도 할 수 있었을 이야기를 천천히 조금만 하는 일은 곡진하다”고 써주셨습니다. 읽어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K-BOOK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쿠온과 도쿄 진보초의 한국어 책방 ‘책거리’를 운

영하는 김승복 대표님 등이 오랫동안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해온 행사로, 올해는 고선경·유선혜·송희지 시인과 저까지 한국 시인 4명이 초청됐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열띤 열한 마음입니다. 「습설」과 「망몽망」 두 편을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일본 시인 이시다 료와 함께 토크와 낭독을 진행합니다. 진보초 산책과 번역 워크숍 등 일본의 창작자와 독자를 만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를 번역해 다른 언어의 독자와 만나는 경험은 처음이라 무척 설렙니다.

처음 보는 단어나 어느 날 새삼 생경하게 느껴지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 편입니다. 단어를 소리 내 말해보고 한자를 찾아보는 일도 좋아합니다.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아 낯선 도시에 가면 서점이나 시장을 찾아가고, 그곳의 오래된 공간과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책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나 낯선 이야기가 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제작 과정과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상을 쉽게 만들어내는 시대에 전편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과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삶의

방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난 인쇄소가 잠시 도서관이 된 ‘인타임 도서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인타임을 거쳐 만든 2,400여 권의 책이 작업장으로 돌아와 서가를 채웠고, 책을 만드는 아날로그 공정과 그 일을 해온 직원들의 인터뷰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옛 지금’을 좋아합니다. 옛것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에 동시대의 감각이 겹치는 순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찍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책 한 권을

올해 초 출간한 앤솔리지 시집
『햇생강이 나오면』과 첫 시집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겨울』

만드는 일이 지금도 신비롭고 흥미롭습니다. 책은 오래된 유물이면서 여전히 신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시집을 낼 때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쓰고 싶은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내고 나니 다음에는 어떤 시를 쓰고 싶은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고요. 다음 시집에는 조금 더 맹랑하고 솔직한 인간의 시를 쓰고 싶습니다. 우울과 명랑 사이를 오가면서도 나 하나에 머물지 않고, 세계 속의 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고 싶습니다.



S
SEOUL +
로컬 리포트

연결을 만드는 극장들의 플랫폼

한국소극장협회 장경민 이사장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협력관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관객의 반응도 좋았지만, 몇 주간 예정된 공연이 끝나면 작품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지역의 관객을 만나기 어렵고, 지역에서 태어난 작품 역시 대학로나 다른 도시의 무대에 오를 기회가 많지 않다. 어렵게 제작한 작품이 다시 관객을 만나려면 또 다른 공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이 지금 공연예술 생태계에서 가장 아쉽게 바라보는 장면이다.

그는 이 문제를 새로운 작품을 더 많이 제작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 다른 극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극장이 가진 가능성이 또 다른 극장과 연결돼야 한다. 서울과 지역의 공연장이 이어지고 그 네트워크가 다시 해외로 확장돼야 작품의 생명도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경민 이사장이 한국소극장협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연결’이다.

“협회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과 예술가를 연결하고, 좋은 작품과 관객을 연결하고,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의 공연예술 현장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소극장협회에는 전국 약 170개 회원 극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학로에 자리한 회원 극장이 약 90개다. 협회는 민간 소극장의 권익과 운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공연 창작과 유통, 관객 개발, 안전, 국내외 교류 등을 추진한다. 그가 그리고 있는 협회의 미래는 전국의 소극장을 연결하는 ‘극장들의 플랫폼’에 더 가깝다.

연결, 한국에서 아시아로 나아가는 네트워크

공연예술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유통이 어렵다. 영화나 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여러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될 수 있지만 공연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관객을 만나야 한다. 장경민 이사장은 그래서 제작 지원과 함께 작품이 이동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회가 운영하는 ‘대학로티켓닷컴’은 공연 정보와 관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연결은 관객과 공연을 이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전국의 회원 극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작품이 극장과 도시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다. 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극장 365일 공연중’도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지역으로 옮겨가고, 지역에



서 태어난 작품이 서울과 다른 도시의 관객을 다시 만나는 구조다. 소극장 역시 공간을 빌려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작품을 선택하고 예술가를 발굴하며 제작과 유통에 참여해야 한다. 소극장이 창작과 유통의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이사장의 생각이다. 장경민 이사장이 협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꼽는 것은 ‘디페스타^{D.FESTA}’다. 20년 동안 이어져온 디페스타는 소극장을 중심으로 작품과 관객을 만나게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소극장 축제를

넘어 아시아 공연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올해는 중국과 일본의 작품, 한국과 대만 예술가의 공동 제작 등을 포함해 7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기간 일본 도쿄에서도 디페스타가 열리며 국내 작품을 해외로 확장하는 시도도 이어진다. 단순히 해외 공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작품 역시 다른 나라의 무대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축제를 매개로 극장과 극장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중국·대만·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소극장과 공연예술 관계자가 작품을 교환하고 공동 제작할 수 있는 ‘Asia Performance Commons (APC)’도 추진하고 있다. 디페스타가 작품과 예술가가 실제로 만나는 축제의 장이라면, APC는 그 만남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극장 간 상시적 관계로 이어가기 위한 네트워크다. 과거 국제 교류가 해외 작품을 국내로 일회성 초청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APC는 공연장 간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 작품이 아시아 도시의 극장으로 이동하고, 해외 예술가와 한국 예술가가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구조다. 장경민 이사장이 말하는 ‘연결’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해외 작품을 한국에 한 번 초청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작품이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의 예술가가 한국 예술가들과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극장과 극장이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장경민 이사장이 소극장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소극장이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각각의 극장이 자신의 취향과 프로그램, 예술적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소극장은 부동산이 아니라 콘텐츠이고, 대관 공간이 아니라 창작의 주체여야 한다”는 말도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어떤 작가를 발굴하고 어떤 연출가와 함께하며 어떤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극장만의 철

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은 서점마다 주인의 취향이 다르고 미술관마다 큐레이션이 다르듯 소극장도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가 가능성을 시험하고 새로운 작품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곳도 소극장이다. 그는 대학로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을 만나는 장소”로 바라본다.

극장을 살리고 공연을 연결하는

그러나 소극장이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장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회원 극장들이 가장 많이 전하는 이야기도 “이 극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임차료와 인건비·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조명과 음향·무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장경민 이사장은 이를 개별 극장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형 창작극장은 민간 소극장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공연 단체가 합리적인 대관료로 극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장경민 이사장은 이 사업의 의미를 “공간을 지키는 것도 창작 지원이라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에서 찾는다. 앞으로는 단순한 임차료 지원을 넘어 좋은 작품과 예술가를 키우는 창작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플랫폼이라는 생각은 개별 극장을 넘어 대학로라는 거리 전체로 확장된다. 대학로를 다른 거리와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수많은 극장과 매일 이어지는 공연이다. 하지만 그 많은 공연이 각각의 극장 안에 흩어져 있고,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소극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장 이사장이 대학로 활성화 프로젝트 ‘대·락^樂로’에 기대하는 것도 이 간격을 좁히는 일이다.

그는 대학로가 ‘우연히 공연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한다. 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재미있는 공연 정보를 보곤 즉흥적으로 극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을 보고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후에도 대학로에 머물며 다른 문화

와 공간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로 전체가 하나의 공연 플랫폼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가을 서울어텀페스타와 연계해 추진하는 연극할인 페스타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미 공연을 즐기던 관객에게 단순히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공연을 잘 보지 않던 시민에게 “이번에 한번 가볼까”라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둔다. “할인이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연극을 보지 않던 시민에게 처음 극장 문을 열어볼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작품을 보러 왔다가 다른 극장을 발견하고, 거리에서 다음 작품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장경민 이사장은 “오늘 공연 한 편만 보려고 왔는데 볼 것이 굉장히 많네”라는 생각이 드는 대학로를 기대한다.

아직 대학로 소극장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시민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연극을 잘 알아야 소극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로를 걷다가 제목이 재미있어서, 포스터가 마음에 들어서 극장의 문을 열어도 충분하다. 배우의 숨소리와 작은 표정의 변화까지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소극장 공연만의 매력이다.

그러나 관객에게 공연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극장과 창작자가 먼저 관객이 다시 오고 싶은 극장,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관객을 만드는 것 역시 결국 좋은 작품과 좋은 극장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관객이 또 다른 극장과 작품을 발견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다.

장경민 이사장이 꿈꾸는 한국소극장협회의 미래는 결국 다시 ‘연결’이라는 단어로 돌아온다. 전국에 흩어진 작은 극장이 연결되고 한 극장에서 태어난 작품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며, 그 연결이 다시 아시아의 공연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이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관객은 또 다른 작품과 극장을 발견한다. 극장과 극장, 창작자와 관객,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공연예술 플랫폼, 그것이 한국소극장협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다음 무대다.

북유럽 문화기금 60주년, 내일의 무대를 위한 연대

전윤혜 음악평론가

지난 9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2026/27 시즌 개막 공연이 시작을 앞두고 무산됐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쟁점은 임금과 공연·근무 보장이었다. 오페라 측은 연간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210억 원)의 구조적 적자를 안고 있어 현재의 제작 규모와 인건비 구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업으로 네 편의 공연이 연달아 취소된 뒤, 노사는 9월 17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상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장까지 중재

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문제는 한 기관의 노사 분규에 그치지 않는다. 티켓 판매만으로 전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장기 운용 기금인 엔도먼트(endowment)를 꺼내 쓰는 이들의 상황은 미국 클래식 음악계가 안고 있는 재정 취약성을 보여준다. 공연을 줄이면 음악가의 일자리와 수입이 줄어들고,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 기관의 적자가 커지는 딜레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비슷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운영을 위해 총 6,570만 달러(한화 약 914억 원)의 엔도먼트 사용을 승인했다. 2026/27 시즌에는 예년보다 적은 17개 프로덕션을 올린다. 재정 문제가 장부상의 적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연을 올리고, 새 작품과 프로덕션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재정 압박이 프로그램 자체를 멈추게 하기도 한다. 시카고 심포니에타는 2025/26 시즌을 끝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중단하고 전략적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다. 공연을 계속하면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보다 모금과 운영 모델 재설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기관의 규모와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에 닿는다. 높은 고정비가 필요한 예술 조직의 운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지탱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정 구조는 비단 기관의 존속뿐 아니라 새 작품 제작과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의 음악 기관은 티켓 수입과 개인 기부, 재단과 기업 후원, 자체 기금 등 여러 재원을 결합해 운영한다. 특히 대형 기관은 기부를 비롯해 축적한 엔도먼트를 투자하고 그 수익 일부를 운영에 활용한다. 공공 지원도 있지만 그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엔도먼트는 기관의 재정 안전판이지만 당장의 적자를 메울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수입과 비용의 불균형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북유럽은 문화예술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을 좀 더 여러 층위로 나눠왔다. 나라마다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지원이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고, 여기에 티켓과 자체 수입, 민간 후원과



↑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의 음악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노르딕 바로크신에서 개최한 런치 토크. 스테판 헤르헤임 노르웨이 오페라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irill Karianne DeLonge

← NCF의 대표적인 지원 기관인 노르딕 바로크신에서 개최하는 국제 바로크 성악 콩쿠르 파이널 라운드의 모습 ©Eirill Karianne DeLonge

기부 등이 더해진다. 공공 지원은 기관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는다. 예술가와 기관이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도 투입된다. 문화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한 기관의 존속을 넘어 새로운 창작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 범위를 국가의 경계 너머까지 확장한 사례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북유럽 문화기금Nordic Culture Fund, NCF이다. 1966년 출범한 NCF는 북유럽 공식 협력 체계(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및 페로 제도·그린란드·올란드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공공 기금으로, 예술가와 문화기관이 국경을 넘어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고 교류하도록 지원한다. 각국의 문화 지원 체계 위에 국가 간 협력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통로를 두는 것이다.

NCF는 매년 약 3천만 덴마크크로네(한화 약 65억 원)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248개 프로젝트가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각국 예술가와 기관이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과정도 지원 대상이다.

올해 NCF는 2026~2030년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비전을 '문화가 북유럽의 미래를 만든다Culture shapes the future of the Nordics'로 정하고, 지원 기관을 넘어 네트워크 구축자, 전략적 파트너, 새로운 사업의 촉매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시작된 지원 프로그램 'ENTER'도 완성된 결과물보다 다른 이들과 아이디어와 방법을 탐색하고 시험하는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작업이 완성된 다음이 아니라, 작업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지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파업에서 시작한 질문도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 당장의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뿐만 아니라 예술 기관이 계속 공연하고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관의 자체 재원과 민간 후원, 공공 지원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답을 찾기보다 서로 다른 재원을 어떤 역할에 배치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결국 내일의 무대를 결정한다.



최근 팀원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일에서 언제 재미를 느끼는지, A는 팀원들과의 관계가 안정될 때, B는 작은 일이라도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C는 기획안이 실물이 되어 나타날 때를 말했다. 그리고 D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실 예술을 사랑해.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멋진 작업을 할 때가 좋다”고.

솔직하고 정직한 선언에 적잖이 충격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 애매하게 좋아하는 게 많은 나로서는 어찌다가 여기까지 당도한 것일 뿐이다. 적확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뿐더러, 예들려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하지만 티는 내고 싶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스스로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사실 간단한 문제였다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었다. 그냥 인정해버리면 된다. “나 사실 예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일하면서 언제나 재미있는 건 아니다. 당연하다. 재미보다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다. 그게 현대사회 노동자의 기본적인 숙명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타인에게 관대해지기보다 날카롭게 굴 때가 종종 있다.

말에 찢리는 순간이 두려운 걸 알면서도 정작 남에게 뽐족한 마음을 드러내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지곤 한다.

200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임레 케르테스의 자전적 소설 『운명』에 이러한 대목이 있다.

정중한 말 한마디나 제스처, 여기저기에 보내는 반짝이는 눈빛 하나까지 모두 하나의 빛이다.(...) 사실 수용소에서든 우리에게 자존심은 남아 있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남들에게 하는 상냥하고 분별 있는 사소한 말이 결국 본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매일수록 우리에게 이런 말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말, 남들에게 하는 상냥하고 분별 있는 사소한 말.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야 한다. 지치고 병든 우리 동료 나그네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나는 당신들도 예술도 좋아하니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문화+서울]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하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유중아트센터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